

배포 일시	2023. 1.5.(목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	책임자	과 장 이두희 (044-201-4152)
		담당자	사무관 이민규 (044-201-4156)
			사무관 구단일 (044-201-4153)
			주무관 정상미 (044-201-4155)
		주무관 김재형 (044-201-4154)	
보도일시	2023. 1월 6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6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'택배 특별관리기간' 운영

-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(약 6천명) 투입 · 택배 물량 분산 독려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*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 '택배 특별관리기간'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성수기 기간 동안 평시(11월 평균) 대비 약 8%~25% 물량 증가 예상

-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,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,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 '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.

- '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' 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추가인력 투입)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,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.

* 간선차량 1,458명, 임시기사 1,073명, 터미널지원 1,908명, 배송보조 인력 1,295명

- (종사자 휴무) 또한,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설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,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(1.21 ~ 1.24)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.
- 이와 함께,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,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.
- (사전 주문 독려)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·공공기관 등에 ‘사전 주문’ 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구현상 물류정책관은 “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‘미리 주문’ 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” 이라면서,
- “설 전 택배 ‘미리 주문’ 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,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” 을 당부하였다.

